

40년간의 살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7년간이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산과 굴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만한 작은 땅이지만 그 안에 산과 언덕, 평야, 저지(세필라), 그리고 광야와 사막이 있는 다채로운 지형을 가진 신비로운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평야가 아니라 산과 굴에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2절, “..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응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것은 미디안에게 살기 좋은 평야를 강제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철병거 구백대를 소유한 하솔왕 야빈에 의해 이십 년간이나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때도 이스라엘은 평야지대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들은 평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무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산 위에 거처를 삼았는데 이는 그들이 피신하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평야에서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는 가나안 족속과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산의 신’이라고 했습니다(왕상 20: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도 이같은 생각을 더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경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산으로 올라와서 모든 농작물과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미디안 혼자서가 아니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협조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가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그 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습니다(4-5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서 ‘가사’는 블레셋인들이 소유한 5대 성읍들 중에 하나로 이는 당시 미디안의 연합 세력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요단 강을 건너 침입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남서쪽 지역은 이방인들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생활이 점차 궁핍해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회개에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8하-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즉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또 블레셋의 다곤 등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쉽게 변질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에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미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직접 전하시기 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나안과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필요를 당장에 채워주는 종교로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과 거짓된 유혹에 귀가 얇아져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의 조각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당장에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된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삶의 평안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시 125: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 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다시 높이 계신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시 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제목

1.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2. 대선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한 미국의 안정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3.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박훈용<캄보디아>, 우석정<비에트남>, 이기쁨<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